

고대의료원지부 주요 요구안 확정 · 투쟁본부체계전환 결의

2018 임금단체협약 승리위한 본격시동 건다!



6월 27일(수) 오전 9시부터 고대의료원지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1차 임시대의원대회가(이하 임시대대) 열렸다. 임시대대 시작 전 노재옥 지부장이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중 주 52시간, 연차휴가, 폭언폭행 성희롱 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곧이어 이장구 사무장이 사학연금 중 퇴직수당, 퇴직연금 및 지급액과 지급시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이 끝난뒤 본 대회를 시작했으며 노재옥 지부장은 “교섭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의원들이 현장의 요구안을 많이 발의하셔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바탕으로 요구안을 확정하자. 또한 요구안 확정과 함께 교섭을 본격화 할 수 있도록 지부 운영 체계전환도 해야 하는데 대의원들이 잘 논의 해 달라.” 고 말했다.

2018년 임단협의 서막이 열린다!

임금, 부서별 인력 및 단협요구안등 주요 요구안 확정!

임시대대는 38명 중 24명의 참석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부 및 부

서에서 준비한 요구안을 논의하고 확정지었다. 또한 집행부의 운영 체계를 임단협 시작과 맞춰 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고 시기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임단협 요구안은 임금요구 및 단체협약 내용의 개정 및 신설건으로 약 40여 가지이며 추후 발의되는 요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확정하는 것으로 위임했다.

2018년 고대의료원의 40OUT 위해!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로!

한편, 우리지부는 임시대대를 끝낸 후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총력투쟁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오후 1시부터 서울역에서 진행



된 집회는 전국에서 약 4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으며, 4OUT 구호가 담긴 손피켓을 들고 요구를 외쳤다. 서울역 집회를 마친 뒤 조합원들은 서울역에서 행진을 시작해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우리지부도 행진을 함께하며 시민들에게 병원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대의료원에서

단협위반 · 공짜노동 · 태움 · 속임인증 · 비정규직 없앤다!

올 해는 노동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노동계 전반의 임금체계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안암병원 노동부 근로감독과 안산병원 자율개선 사업장 선정 등으로 인해 병원들이 법 위반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체불임금

소급을 진행중에 있다.

우리지부는 임시대대를 통해 임단협 승리를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교섭을 통해 현재 병원에 만연해있는 단협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공짜노동, 태움, 속임인증 비정규직 OUT을 기조로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또한, 2018년은 노사 모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여 시작하는 해인 만큼 과거의 교섭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교섭, 새로운 노사관계를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한 해로 만들자.

1차 임시대의원대회 보고 및 논의 안건

보고사항

1. 활동보고	4월-6월 지부 활동보고
2. 2018년 1/4분기 회계감사 보고	김종욱 회계감사 보고
3. 병원별 2/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간편복교체, 간편화 확대, 의약품 구비건 보고
4. 안산병원 자율개선 사업장 노사회의 보고	노사 2차 회의 진행 보고
5. 노사문화,조직문화,인력구조 개선 연구용역 회의 보고	노사 회의 진행했으며 연구소 발주 하기로 함.
6. 2018년 보건의료노조 투쟁계획 및 확정요구안 보고	노재욱 지부장 발제

논의안건

1. 2018년 고대의료원지부 임단협 요구안 확정 건	이의 없이 통과함. 추가 요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함.
2. 2018년 고대의료원지부 투쟁 본부 전환의 건	이의 없었으며,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승인함.
3. 2018년 회계시행지침 신설의 건	부서로 복귀하는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정(1년에 금 반돈) 시행중이나 회계시행지침에 삽입되어 있지 않아 신설하기로 함.

**청와대 국민청원
함께해주세요!**

4OUT! 공짜노동, 태움, 속임인증, 비정규직 없애고 환자가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6월 27일 부터 7월 27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